

고창 멜론 온라인 경매 최고가 도전

고창군농기센터, 17일 전국 최초 경매행사 개최 최종결선 농가 3곳 '고창멜론 블로그' 사전투표

고창의 특산물인 멜론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최고가에 도전한다.

고창군과 고창멜론생산자연합회(회장 유신중)는 오는 17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행사장에서 멜론경진대회와 전국 최초의 멜론 온라인 경매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고창 지역에는 120여 농가가 멜론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경매에 올릴 멜론의 신선도 확보를 위해 이를 전일 15일(경매 당일 신선도 확보)에 수확이 가능한 농가 3곳을 선정했다.

17일 최종결선에서 4단계(농장관리상황, 온라인투표, 전문가평가, 전국맛평가단 100명)에 걸친 까다로운 평가로 최종 1개 농가를 선발하고, 농가에서 재배한 명품 멜론이 온라인 경매(유튜브 생방송)에 오른다.

고창멜론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이 인정

된 멜론의 경매가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최종결선에 오른 농가 3곳의 농장 상황과 농부의 열정(온라인투표) 등을 '고창멜론 블로그'에 올려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하농원 입장료 50% 할인, 고창군내 팜팜농가 할인쿠폰 등을 선물도 증정한다. 온라인 투표결과는 최종 결선에서 20% 반영된다.

고창멜론 현장컨설팅을 지도한 한석교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 교수는 "멜론껍질에 형성된 네트의 굵기 정도와 밀도가 그 멜론의 품질과 품격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고창멜론은 미네랄과 원적외선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17일 고창멜론 중에서 최상의 품질과 최고가를 가리는 온라인 경매(유튜브 생방송)가 진행된다. 고창 특산물 황토배기 멜론. <광주일보 자료사진>

받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땅과 정성, 노력이 가득 담긴 고창 멜론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

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창멜론의 온라인 경매에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49억 투입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

정읍시가 실내형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조감도) 조성에 힘을 쏟는다.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 전북 최대 규모의 복합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총 49억원을 투입한다.

복합놀이시설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했으며 오는 2020년 2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놀이시설은 총 2962㎡의 규모로 타워클라이밍과 스쿠르스포츠, 멀티코트, 트

램폴 등 다양한 20종 50여개의 기구가 들어선다. 실내형 어드벤처 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청소년들과 연인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놀이시설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며진다.

시는 놀이시설이 워터파크, 국민여가캠핑장 등과 함께 각종 문화레저시설을 두루 갖춘 관광단지 조성에 세계적 토탈관광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내장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성한 체험·관광시설을 구축해 정읍 관광 발전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발효소스토굴 전시관 새 단장

피서지 각광 속 '장(醬) 역사' 한 눈에 알 수 있어

순창 발효소스토굴이 무더위 피서지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최근 '장(醬)의 역사'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발효소스토굴은 순창읍 백산리 전통추장민속마을 인근에 위치한 길이 134m에 최대폭 46m인 대형 저장고로, 최근 가상현실(VR)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방문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군이 고조선부터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류

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사진)을 새롭게 구축해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류의 기원은 유교 경전인 '논어' 향당편을 통해 "공자는 음식 씹 것이 바르지 않으면 잡숫지 않았고 장이 없으면 식사하지 않았다"라는 글귀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고조선과 삼국시대,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면서 장류의 근본기술인 발효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군이 발전해가고 있음을 이번 전시관 구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군은 장류의 근본기술은 발효 분야



를 적극 활성화하고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사업과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건립 등 관련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광양시, 구봉산 일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호텔·골프장·루지·짚라인 등 숙박·위락시설 갖춰

광양시 구봉산 일원에 숙박과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구봉산에 호텔, 골프장, 루지, 짚라인 등을 갖춘 190만㎡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주)LF네트웍스와 행정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20일, 29일, 9월 18일 세 차례에 걸쳐 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광양LF스퀘어 개장 당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LF네트웍스는 위치 선정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에 직원 1명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부지매입과 사업에 나서고 있다.

민간 개발자인 LF네트웍스가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3분

의 2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구봉산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27홀 골프장, 100실 규모의 호텔과 루지 등이 조성되고 인근에 어린이테마파크가 들어설 경우 외지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의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김상근 광양시 TF팀장은 "(주)LF네트웍스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고, 개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TF팀을 발족시켰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 기회가 아니면 사업 예정 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지역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완도산 '구운김' 폴란드 수출

바다명가, 벨기에 수산물박람회서 100만 달러 수출계약

완도에서 생산된 구운김이 폴란드에 수출된다.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해양수산창업 투자지원사업 대상인 (주)바다명가는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 수산물박람회에 참가해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완도산 구운김을 폴란드에 첫 수출하기 위해 선적식을 가졌다. <사진>

(주)바다명가는 완도군 제2공장에서 정석호 완도부군수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임영태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1차분 구운김 1만5660속(220박스)을 선적했다. 바다명가와 계약한 아시안마켓은 한국

과 일본 식품을 폴란드로 수입하는 회사로, 주 고객은 대규모 도매회사와 중소 규모 자영업자 등이다.

이번 선적을 계기로 완도산 수산물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유럽 현지 시장진입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한 결과 폴란드 수출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